



## "TARSHITO FALLS IN LOVE WITH KOREA"

Artworks by Tarshito with Son Oe Ja

한국과 사랑에 빠진 타르시토\_타르시토와 손외자의 협업

주최: 주한이탈리아문화원,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청

장소: 시민청 갤러리,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, 지하 2 층

기간: 2019 년 9 월 4~17 일

개막식: 2019 년 9 월 3 일 오후 5 시

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민청과 함께 "Tarshito falls in love with Korea \_타르시토와 손외자의 협업"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다.

이 전시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,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문화권을 예술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.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타르시토가 한국의 아티스트 손외자를 만났다. 서로 다른 창의적 소양에서 출발하는 회화 작품을 함께 그리는 것이 목표였고 그 결과는 "화합"에 공동의 목적을 둔 예술 언어의 융합이었다.

그렇게 하여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제작된 17 점의 작품들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.

예술을 통하여 지식을 고양하고 악습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순환시키는 빛을 작품 안에 담는 것이 이 작품들의 의도이다.

**"지도 위에 이렇게도 많은 국가와 선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. 지구상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. 세상이 나누어져 있음은 인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나누어져 있음은 세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.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다. 단 하나의 인류, 단 하나의 지구를 우리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." - 오쇼 라니쉬**



'단 하나의 지구, 단 하나의 인류'는 타르시토의 계몽적인 근본 원리이며, 그는 다양한 대륙들의 부분과 조각을 **함께** 묶어 새로운 국가들을 창조함으로써 "화합"의 의미를 추구한다. 타르시토는 이러한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을 이탈리아와 혼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국가가 되도록 하였으며, 자신을 맞이해 준 나라의 성산(聖山)들과 사찰, 그리고 자연과 나무의 일부를 그려 한국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하였다. 그가 그린 나무에 열매로 맺힌 *향아리*는 '수용력'을, 종은 '신의 부르심'을 뜻하며 *물고기*는 '풍요로움과 신 그 자체'를 의미한다. 그는 새로운 화합의 세상을 창조하였고 아티스트 손외자를 초대하여 그녀가 자신의 전통 회화를 통해 모든 문화를 화합시키는 보편적인 표현 언어로서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.

또한 서울에 있는 사찰인 보문사에서 회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예술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성스러운 매개체가 될 수 있게 하였다.

그들은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화합, 즉 한국과 이탈리아의 민족과 피조물 간의 우정을 추구하였다. 예술 작품은 일종의 거울이 되고, 관람객들은 그러한 거울을 바라보며 표면적인 '서로 다름'을 뛰어넘는 공감과 일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